

수산물 안전 등 경북지역 주요 수산분야 현안 논의

- 송상근 해수부 차관, 경북권역 생산자단체에
수산업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당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19일(금) 경북 포항 구룡포수협에서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가 주최한 경북권역 수산정책 방향 생산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경북도연합회장, 구룡포 선주협회장을 비롯하여 경북권역 생산자 단체장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송 차관은 경북지역 수산업계가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편,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지난 4월부터 경남권역, 제주권역, 전남권역 생산자단체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경북권역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마무리한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생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수산업의 가치를 지키고 우리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자”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안전관리과	책임자	과 장	최장원 (044-200-5940)
		담당자	사무관	김수정 (044-200-5803)